

광주은행, 중앙아시아 금융시장 본격 공략

우즈베키스탄 Hayot Bank와 업무협약 베트남 증권사 운영 경험 바탕 사업 확대 양국 거주 외국인 금융서비스 등 협력

광주은행이 중앙아시아 금융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광주은행은 지난 4일 우즈베키스탄의 디지털 기반 상업은행 JSC Hayot Bank (‘하오펁크’)와

‘중앙아시아 금융시장 진출 기반 마련 및 상호 금융시장 이해 증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주은행이 추진 중인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베트남 증권사(JBSV)를 통해 축적한 해외 사업 경험과 디지털 금융 역량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시장으로 보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빠른 경제 성장과 금융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을 전략 거점으로 삼아, 신흥 금융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 거주 외국인 대상 금융서비스 협력 ▲K-금융 기반 디지털 뱅킹 기술 지원 ▲우즈베키스탄 금융시장 조사 협력 ▲이슬람 금융 분야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광주은행은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우즈베키스탄 국적자가 약 9만 5천 명으로,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외국인 고객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과 특화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해외 네트워크와 연계한 금융 지원 모델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은행은 지난해 베트남 플랫폼 기업 OKXE(오케이씨)와 INFINA(인피나)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등 디지털 기반 해외 제휴 비즈니스를 지속 확대해 왔다. 이번 하오펁크와의 협력 역시 이러한 글로벌 디지털 금융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 중앙기적으로는 국내 은행권에서 비교적 생소한 ‘이슬람 금융’ 분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중앙아시아 및 중동 시장 진출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광주은행이 지역을 넘어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베트남에서 축적한 해외 사업 경험을 토대로 중앙아시아 시장과의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재만 기자



5천580대 회복한 코스피 최근 연이름 폭락한 코스피가 급반등해 단숨에 5,580대를 회복한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90.36포인트(9.63%) 오른 5,583.90에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광주경총 “이란 사태 장기화시 지역 경제 타격 불가피”

유가 ↑·원자재 수급 차질 등 악영향 전망 비축유 방출, 물류·금융 지원 등 대안 제시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최근 고조되는 이란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광주·전남 지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5일 광주경총에 따르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유가 및 원자재 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수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구조상, 석유화학 비중이 큰 전남 지역이 광주보다 더 강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 지역의 경우, 2025년 자동차와 반도체 호조로 수출이 12.6% 증가했으며 2026년에도 AI

투자 확대 등 긍정적 요인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유가 상승에 따른 물류비와 소재 비용 상승은 완성차 및 부품 기업의 영업이익률과 현금흐름(캐시플로)에 점진적인 압박을 가해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반도체, 자동차 부품, 고무 제품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실제 저하와 생산 중단 위기에 직면할 수 있어 지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경총 양진석 회장은 “사태 장기화 시 지역 GDP 성장 둔화와 고용 위축이 예상된다”며 “단기 수개월 내 유가 안정 시 충격 완화 가능성과 정부에서 비축유 방출, 물류·금융지원, 세계 감면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임재만 기자

에 직면할 수 있어 지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경총 양진석 회장은 “사태 장기화 시 지역 GDP 성장 둔화와 고용 위축이 예상된다”며 “단기 수개월 내 유가 안정 시 충격 완화 가능성과 정부에서 비축유 방출, 물류·금융지원, 세계 감면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임재만 기자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약속
RE100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국세청, 성실납세·세정협조자 91명 정부포상

광주지방국세청은 5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개청 60주년과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등 91명에게 정부포상 표창장 등을 전달했다.

이날 성실납세 정부 포상자는 동탑훈장에 ㈜한호 한수경 대표이사, 산업포장에 석도국제웨리㈜ 김상경 대표이사, 대통령 표창에 대호기계 공업㈜ 류문철 대표이사, 공전제과 윤준호 대표, 국무총리 표창에 ㈜서창 조선형 대표이사, ㈜디엠티 허만 대표이사 등이다.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은 ㈜재성 안광섭 대표이사 등 14명이, 국세청장 표창은 ㈜한빛하이테크 최용훈 대표이사 등 16명이, 광주

지방국세청장 표창은 제일건설㈜ 김문수 부장 등 18명이, 세무시장 표창은 동원제제소 최용우 대표 등 22명이 받았다.

세정협조자 표창은 자강산업주식회사 민택규 대표이사 등 7명이, 우수기관 표창은 순천세무서가 수상했다.

광주국세청은 청장 명의로 관내 수상자 전원에게 축하 편지와 함께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을 담은 안내 책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맞춤형 세정을 지원해 누구나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도로공사광주전남본부, 하이패스 단말기 무상 보급

전남도 장애인 대상 1천400대 선착순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5일 “전남도와 협력해 ‘장애인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무상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총 1만2천200대를 무상 보급해 왔으며 올해에도 약 1천400대를 선착순으로 무상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및 본인 명의 차량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보호자 명의 차량을 소유한 전남도 등록 장애인이다. /임재만 기자

단말기 구입 비용은 한국도로공사, 전남도, 단말기 판매업체가 공동으로 전액 부담한다.

신청방법은 자동차등록증, 감면카드(통합복지카드), 신분증을 지참해 광주전남본부 관내 52개 톨게이트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문인식 단말기 신청 시, 지문 등록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관내 7개 지사(158-8-250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추가 등록 후 이용할 수 있다. /임재만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순천의 **웃으며** 장보는 길
100년 전통 순천웃장

웃장

☉ 장이 서는 날 ☉ 5, 10일

정원의 도시 순천 아랫장
5일마다 열리는 만 가지 행복

아랫장

☉ 장이 서는 날 ☉ 2, 7일

활력 넘치는 신선한 매일시장
순천 역전시장

역전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일시장

먹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순천의 중심! 중앙시장

중앙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일시장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광고문의 : 062)650-2099